

“러시아, 미 근처 핵미사일 배치할 수도”

NYT “합의 불발시 추가 위협”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우크라 침공·사이버공격 등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서방과 대치 중인 러시아가 협상에서 자신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국 본토 인근 핵무기 배치 등 추가 위협에 나설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제안한 안전보장 제안을 거부당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협을 러시아 측의 그간 발언을 토대로 분석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집결한 러시아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이 지역 침공을 감행하는 것을 가장 현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꼽았다. 다만 전면 침공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교전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으로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범위를 두고 5~6가지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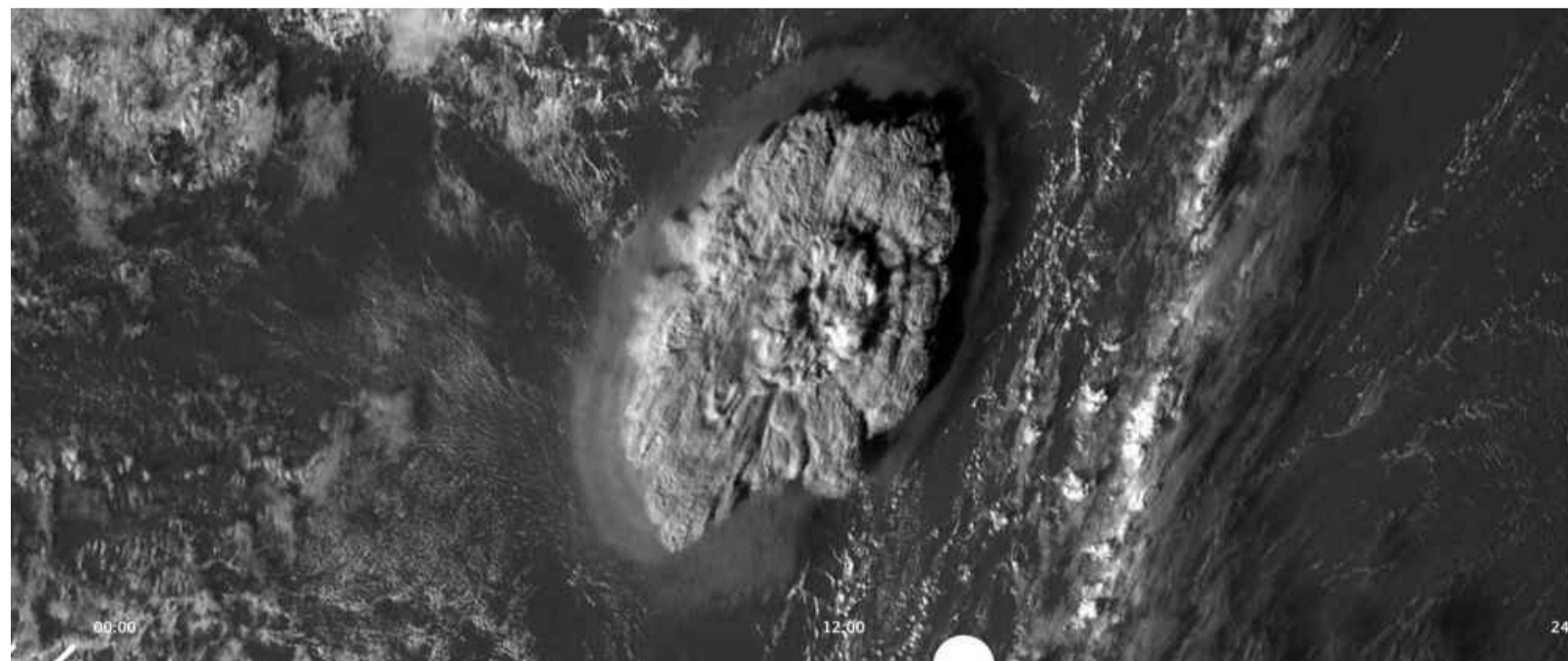
NYT는 러시아 외교 관리 발언 등을 인용해 러시아가 미국과 근접한 지역에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전술핵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활용해 새로운 핵 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 예측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도 서방의 동진(東進)에 맞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잠수함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미국 등 자신들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미국 내 많

은 전력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을 경고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 13~14일 우크라이나 정부 7개 부처와 국가 응급서비스 등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배후로도 러시아가 지목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군사력을 증강하자 서방은 올해 초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근까지 연쇄 회담을 이어왔다. 러시아는 서방에 우크라이나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나토가 러시아 인근 국가에 병력·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연일 포착되고 있으며, 서방은 실제 침공으로 이어질 시 가혹한 경제 조치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한 화산재 내뿜는 남태평양 통가 해저 화산 15일(현지시간)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해저화산 ‘홍가 통가 홍가 하파이 화산’이 폭발해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일본 기상청의 히마와리 8호 기상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다. 해저화산 폭발로 통가에 쓰나미가 강타한 가운데 이틀째 통신 장애로 인한 구체적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미일 정상, 21일 첫 화상정상회담...“인도태평양 협력”

대중 견제·대북 공조 등 중점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화상정상 회담을 한다.

화상회담은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국 견제와 대북 공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와 경제, 국민의 유대 심화를 위한 것”이라며 미일 화상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다.

사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주춧돌(cornerstone·코너스톤)인 미일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신기술 협력 확대 등을 거론했다. 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비공식 협력체 ‘쿼드’를 통한 협력 확대도 거론했다.

백악관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번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의 역할 확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

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북한이 연초부터 무력시위를 연달아 감행하는 가운데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미일 정상 간 대북 공조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미국 방문을 모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 탓에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포위망 구축에 있어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작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백악관 대면회담을 한 정상도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였으며 당시 논의의 중심이 대중·대북공조에 맞춰졌다. /연합뉴스



올림픽 앞둔 베이징 오미크론 비상 16일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코로나19 이동 검사소에서 한 남성이 여행 요건 충족을 위해 핵산(PCR) 검사를 하고 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20여 일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베이징시 당국은 오는 22일부터 3월 말까지 베이징에 진입하는 사람(통근 인원 제외)은 도착 후 72시간 안에 핵산(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후원기업들에 비난 쇄도

세계 200여 인권단체, 압박 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일부가 중국내 인권침해를 이유로 내달 열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이번 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들에도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세계 200여 개 인권 관련 단체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 후원이나 경기 중계방송을 취소하라는 서한을 보내고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활동가들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후원은 신장웨이우얼(신강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등에서 인권을 탄압한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후원사들 입장에선 세계 2위의 거대 시장

을 쥐락펴락하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후원을 철회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WP는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비판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IOC 최상위 후원사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사 ‘인텔’은 지난달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자사 협력업체들에 신장산(産)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방침을 밝혔다가 중국 관영매체뿐 아니라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결국 사과했다. 인텔의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6%에 이른다.

이런 까닭에 후원사들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다. 실제 WP는 IOC 후원사 일부에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인텔을 비롯한 다수가 직접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마카오, 카지노 허가기간 10년으로 절반 단축

자본금 상향 등 규제 대폭 강화

‘카지노의 도시’ 마카오가 카지노 사업허가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카지노업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이 특별행정구인 마카오를 기술허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앞으로 마카오 카지노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카오 정부는 지난 14일 카지노 사업 허가권은 기존 6개로 유지하되, 허가권의 유효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기간 연장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 카지노 이사회에 참여하는 마카오 영주권자의 비율을 기존 최소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허가권을 얻기 위한 최저자본금을 2억파타카(약 297억원)

에서 50억파타카(약 7427억원)로 대폭 올렸다.

마카오 정부는 이러한 규정 변화에 대해 “도박산업의 건강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규제를 개선하며, 도박의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영토 내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마카오가 다각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20년 만에 최대 카지노 개혁법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카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45일간 5차례 청문회를 통해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9가지 사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마카오에서는 샌드차이나, 윈마카오, 갤럭시엔터테인먼트, SJM홀딩스, 펠코엔터테인먼트, MGM차이나 등 6개 업체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허가권은 오는 6월 일제히 만료된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귀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